

추석 '민족 대이동' ...코로나 확산 분수령 되나

백신 접종자 포함 8인 가능
지역간 이동·재확산 우려

대면접촉 감염 무방비 노출
가족·친지 등 만남 자제 당부

13일 서울에서 거주하는 최준성 최 모 씨(24·여)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KTX 열차를 타고 오는 16일 광주에 내려갈 계획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승차권을 환불해야 할지 고민이다.

최씨는 "예년 같았으면 버스타기 차를 타고 고향을 방문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 보니 행여 대중교통이 옹골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부모님에게도 코로나가 전파될까 봐 불안하다"며 "차라리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지는 시기에 고향을 방문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대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통해 300km 이상 떨어진 타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전화를 자주 하려고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 엄마와 함께 송편을 빚었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엄마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다"고 울먹였다.

명절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고향에 갈 예정이라는 직장인 박 모 씨(35)는 "사적 모임이 8인으로 완화된다는데 그것도 현재로서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괜히 친인

척들이 모였다가 의심환자라도 나오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내가 낳은 아들을 부모님에게 안겨드리고 싶지만, '손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고향 방문 날짜를 다음으로 기약해야 할지 아내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간 대규모 이동과 가족 모임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다음달 3일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의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자칫 추석 연휴 기간 대면 접촉으로 코로나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코로나 재확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광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중학교 내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절 기간 외출을 자제하고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판매대상 창쪽 좌석 99만2,000석 중 48.8%(48만4,000석) 예매율을 기록해 지난해(45.2%)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48.7%, 경전선 52.2%, 호남선 55.8%, 전라선 62.6%, 강릉선 43.2%로 작년과 비교해 예매율(경부선 24.4%, 경전선 26.0%, 호



추석맞이 송편 나눔

13일 오전 광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송편나눔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취약계층들에게 전달할 모시잎 송편을 빚고 있다. /김생훈 기자

남선 27.1%, 전라선 29.6%, 강릉선 17.3%)이 높았다.

하행선 예매율 또한 82.1%(경부선 84.0%, 호남선 92.5%)로, 지난해(경부선 45.3%, 호남선 47.2%)보다 39.5% 상

승했다.

이처럼 이번 추석에는 지역 간 이동이 작년과 비교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휴기간 코로나 재확산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방역 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 접종률을 연휴기간 코로나 재확산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방역 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 접종률을 연휴기간 코로나 재확산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족, 친지 간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환준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선후보 사퇴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경선판 요동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후보직을 중도 사퇴했다.

▶관련기사 5면

지난 6월 17일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88일만이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의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순회 경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전복이 지지기반인 그가 도중하차함에 따라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선 경선 완주 여부를 논의했다.

정 전 총리는 약 한 시간여 후인 오후 4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퇴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의 사퇴로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는 기존의 6파전에서 5파전으로 재편됐다.

정 전 총리는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며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1차 선거인단 회의에서 추미애 후보에 밀려 4위로 내려앉으며 타격을 입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리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데다 마지막 선이었던 3위마저 추월 당하면서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후보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 올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기부 장관, e-모빌리티 특구 방문

백신 특구 등 점검·어로 청취
김영록 지사, 현안 지원 요청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사진)이 13일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방문해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권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들은 또 영광 터미널시장을 방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로했다.

권 장관은 e-모빌리티연구센터를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사업 전반 추진 성과를 보고 받은 후 e-모빌리티 전시 관람, 실외 시험장 현황 청취하고 시승했다. 특구 기업인 초소형전기차 생산업체 (주)보모빌



리티를 찾아 기업 현황을 청취하고, 공장동을 시찰하며 국산배터리 장착 공정과 각종 품질검사 공정을 둘러봤다.

이후 화순으로 이동해 백신산업특구 추진성과를 보고받고 미생물을 근간으로 하는 백신 위탁생산 시설 미생물실증지원센터의 미생물 배양, 비임상·임상시험 등 관련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백신특구 내 (주)바이오FD&C 기업도 찾아 연구·생산시설을 살피고, 5개 특구 대표기업과 소통하며 특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권 장관은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며 "또한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K-글로벌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이 될 e-모빌리티 산업과 백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권 장관에게 e-모빌리티 관련 규제와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백신산업특구 기반 조성 등 중기부 관련 전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화순 백신산업특구내 AI 기반 첨단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남해안남중권에 중소기업 연구원 건립 ▲전남 에너지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연장 ▲전남 바이오기업 육성 전용펀드 조성 ▲전남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이다. /길용현 기자

중용S-클래스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 중용이 짓습니다

주거명품 중용S-클래스를 통해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중용그룹!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큰 목표는 바로 고객의 행복을 짓는 것입니다

S-CLASS

• 2020 건설업력증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2019 헤럴드경제 '살고싶은집' 주상복합부문 대상 •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전국 주요 사업실적

안산 선부동 중용S-클래스

위례신도시 중용S-클래스

서울 천호동 중용S-클래스

세종시 H9 중용S-클래스

광교신도시 중용S-클래스